

재가수행의 표상 백봉 김기추



“선생님은 무식한 도깨비였다.” 지난 1970년, 백봉 김기추 기사를 6개월간 시봉했던 성태용 건국대 교수(53)는 스승을 이렇게 회고했다. 젊은 시절, 백봉 김기추 기사(사진)는 불교의 ‘불’ 자도 몰랐다고 한다. 56세 늦깎이로 불문에 들어선 백봉 김기추는 스무 살 청년이었던 성 교수에게 생소한 불교용어에 대해 늘 물었다. “성군! 이게 무슨 소리고?”

백봉 김기추는 190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23년 부산 제2상업학교 입학, 뒤늦게 설립된 일본계 학교를 ‘부산 제1상업학교’라 하는데 반발해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퇴학, 이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31년 형무소에 수감된 후,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백봉 김기추는 사방의 벽을 관세음보살로 빼곡할 정도로 그 명호를 쓰고 염송했다. 이것이 불교와 인연이었다.

독립운동으로 청장년 시기를 보낸 백봉 김기추는 1963년 6월, 충남 심우사에서 우연히 ‘무자(無字)’ 화두를 접한 뒤 본격적으로 율령(律令)을 하게 됐다. 다음해 <무문관>의 ‘비심비불(非心非佛)’이란 글귀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보림회를 결성, 20여년간 재가자들을 지도했다. 저서에는 <유마경대강론> <선문열송요론> <도솔원에서 만남시다> 등이 있다.

입실점검에 혼신 종달 이희익



재가선의 세계에서는 선도회 1대 지도법사로 알려진 종달 이희익의 기사(사진), 입상의 삶 속에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백봉 김기추와 달리 종달 김기추는 불교계 제도권에서 수행의 길을 걸어온 재가선사다. 1905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종달 김기추는 함흥 제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 일본 유학 길에 올라 일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인텔리였다.

종달 김기추의 불교 입문은 귀국한 뒤 <조선 불교> 잡지의 편집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불교에 문외한이었던 종달 김기추는 당시 나까무라라는 일본인 선객에 이끌려 일본 입재종으로 출가한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처음 받은 화두는 ‘무자(無字)’. 종달 김기추는 입재종의 입실지도도를 받고 결국 무자 화두를 무과했다. 박영재(50) 서경대 교수는 종달 김기추의 수행지도 열정을 ‘화장실 입실점검’ 일화로 소개한다. 1983년 서울 화산백화점 근처에 시민선방을 맡게 된 종달 김기추는 입실점검할 공간이 따로 없자, 화장실의 변기통에 걸터앉아 사람을 허나씩 불러 들어 공부점검을 해줬다. 입실점검이 공부의 생명으로 여겼던 종달 김기추는 철저히 입실점검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저서에는 <무문관> <생활속의 선> <선종사상사> <좌선> <인생의 계단> 등이 있다.

특별대담

백봉 김기추·종달 이희익 한국 거사선종의 두 산맥을 말한다

참가자 : 성태용 교수(백봉의 제자·건국대 철학과) 박영재 교수(선도회 지도법사·서경대 불리학과)

20세기 한국불교에 거사선종(居士禪風)을 드날린 한국의 유가이자 백봉(白峯)과 종달(宗達). 이들은 한국거사불교의 양대 산맥이다. 그런 두 거사가 올해로 각각 타계 20·15 주기를 맞는다. 순한글 화두인 ‘새말귀’ 운동을 벌이면서 거사종(居士風)을 세웠던 백봉 김기추(金基秋·1908~1986) 거사, 무문관 48칙을 통한 ‘입실점검’ 전통을 확립했던 종달 이희익(李喜益·1905~1990) 거사. 이들은 한국거사불교에 ‘생활선(生活禪)’ 수행풍토를 조성한 장본인이었다. 그럼 이들 거사의 선종은 현대를 사는 재가불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까? 6월 7일, 백봉을 가장 가까이서 시봉한 성태용 건국대 교수와 종달의 법제자 박영재 서경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

성태용 : 올해로 백봉 선생님이 열반한 지 20년, 종달 선생님이 15년 됐어요. 사실 지금의 재가불자운동 원동력은 바로 이 분들의 선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백봉 선생님은 ‘거사풍(居士風)’이란 말을 쓰면서, 당시 스스로 거사풍을 성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셨죠. 선생님은 ‘스님들은 24시간 수행으로 다져진 분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에 재가자 나름대로의 수행방안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선구적인 안목을 가지셨다고 생각해요. 종달 선생님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영재 : 종달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 ‘재가자들이 참선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20년간 스님으로 생활해왔기에 출가자의 입장에서만 선수행을 생각하셨던 거죠. 지난 1965년, 선생님이 조계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참선지도도를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일반인이 흥내나 내겠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선도회 1호 제자였던 월심 이창훈 거사의 치열한 수행에 생각을 바꾸셨죠. 6개월을 새벽같이 선생님 집으로 찾아와 입실점검받는 이 거사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의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일반인도 참선공부가 가능하구나’ 라고 느꼈고, 이 때부터 선도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불교에 대해 거의 무지상태에서 출발했죠. 늦깎이 56세 때 갑자기 화두를 들고 혼자서 수행을 시작했어요. 당시 선생님은 ‘허가 스님이 한 팔을 자른 깨달음 이해했다’고 할 정도였죠. ‘이것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하면서 ‘팔 한 쪽을 자르라고 하면 자르겠다’고 했었어요. 선가의 말로 ‘대사입번(大死一番)’, 즉 ‘크게 한번 죽

겠다’는 각오를 한 거죠. 불교에 늦게 들어온 터라 당시 스스로 재가불자로서 하면 된다는 모험을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뒤로 끊임없이 ‘재가 불자로서 어떻게 수행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했던 자취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은 참대조적입니다. 종달 선생님은 스님으로 출발해 ‘재가불자가 참선수행을 할 수 있

백봉

“수행은 생활의 연장” 순한글 화두 새말귀 주창 하루 세번 설법, 제자들 의단 속으로 몰입 도와

종달

공안집 ‘무문관’ 대중화...거사 선종 진작에 기여 1~2주마다 1:1 입실 점검...치열함 속 공부 무르익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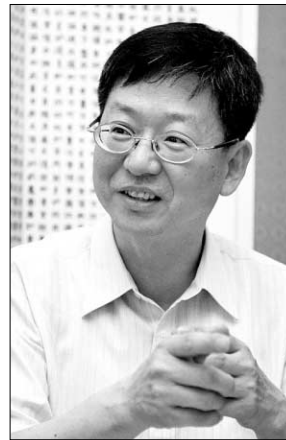
겠느냐’에서 시작해 이후 확신을 갖고 거사선종을 이끌었고, 백봉 선생님은 재가자로서 확실히 출발해 끝까지 거사선종을 드날린 것이 비교가 되는군요. 참, 종달 선생님은 무문관 입실지도도를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영재 : 종달 선생님이 한국 선불교에 끼친 중요한 영향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현대불교에 무문관(無門關)을 다시 출현시킨 점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1969년 <법사>에 무문관 20여 공안을 연재한 것을 모아 1974년 책으로 출판하기 전까지 불교계는 무문관을 거의 모르다시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그 전에 한국에는 무문관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어요. 여하튼 제가 보는 견해로 무문관은 선종 최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고의 공안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문하게 선사가 6년간 조주 무자(無字)만을 써들면서 얻고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수행자에게 아주 요긴한 점들을 담아놓았기 때문이죠. 무자 공안에는 마음자체에서부터 화두를 깨친 이후의 경계까지



박영재 서경대 불리학과 교수

반인에게는 어렵다는 말은 틀렸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간화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수행해 견성을 했어요. 선생님은 늘 지금의 참선종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두를 들 수 없게 한다고 말

백봉

종달

곶했죠. 우리 불자들은 내공력이 고갈되면 수행해 내공을 쌓고, 내공력이 없으면 다시 수행으로 들어가고, 말하자면 ‘쌓고 까먹고 쌓고 까먹는’ 그런 잘못된 수행풍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선에 대한 생각은 잘못했다고 강조했죠.

그랬어 선생님은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단편적으로 화두를 드는 방식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죠. 삶이 바로 수행인 방법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수행에서 제외되니 이것을 수행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 ‘새말귀’예요. 일상적인 삶이 수행의 장에

삶 자체가 수행...

서 밀려나지 말고, 바로 수행이 생활의 연장이라는 생각에서 새말귀를 주창했던 거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의 말귀로 통해 자신의 삶을 다잡아가고, 수행으로 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한 것이 ‘모습을 잘 굴러라’였어요.

박영재 : 그 가르침은 선도회 가르침과 똑 같군요. 원오극근 선사의 선어록에 보면, ‘좌일주질(坐一走)’란 선어가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을 8등분해서 1/8은 아랫배에 힘을 쏟고, 그 힘을 갖고 자기 전문직의 7/8에 100% 뛰어들라’는 말이죠. 제 전공이 이론물리인데, 한참 연구에 몰두하다보면 계산이 틀린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실 좌복에 앉아 ‘어디가 문제인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요. 그러다보면 무릎을 탁 칠 때가 와요. ‘아! 내가 여기를 놓쳤구나’ 하고 말이지요. 스스로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것이예요. 그 물리문제가 제게는 화두가 된 거죠.

화두는 일반인들이 처음에 붙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심자는 늘 수식관을 해야 해요. 수(數)를 세면서 호흡하는 데에 집중력을 충분히 기른 사람들에게 화두를 줘야 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좋은 시간을 택해서 할 때 타는 시간만 집중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 법신을 잘 굴러라는 거죠.

성태용 : ‘법신을 잘 굴러라’란 말인데, 이는 선생님의 ‘모습을 잘 굴러라’는 말과 같아요. 선생님은 처음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라. 언제나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구나’를 점검하는 것도 수행이 된다고 했죠. 나중에는 ‘모습을 잘 굴러라’한다는 것 속에 벌써 삼(三)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그럴 때 ‘모습을 잘 굴러라’ 하는 것이 이미 세속적인 일을 충실히 잘하는 방편으로써, 또 새로운 말귀가 화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삶의 현장을 수행의 장으로 바꿔 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영재 :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화두점검하는 과정을 바로 입실점검이라 했어요. 입실점검은 1주일 2주일 단위로 제자들과 1대1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는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두가 얼마나 진취했는지, 또 하나는 입실점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점이에요. 입실점검을 받

19면으로 이어짐

Advertisement for '좌선삼매경' (Sitting Meditation Threefold Path) by Kumara-ji. Includes title, author info, and a small image of a person meditating.

Advertisement for '불교와 문화' (Buddhism and Culture) featuring a photo of people in a traditional setting and text about Buddhist culture and art.

출가자보다 ‘단단한 각오’ 강조

18면에서 계속

오리 들어갈 때는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가장 순일무잡한 경계 속에서 화두를 점검받게 돼요. 그때에만 수행자가 정말로 치열하게 자기 1주일을 돌이켜보고 점검받는 과정에서 공부 가 무르익게 되거든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매일 설법을 세 번씩 꼭 했어요. 불꽃이 튀는 선어가 쏟아지는 그런 설법이었죠. 설법을 가만히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서 설법을 듣지 않으면 방망이로 맞고 쫓겨나곤 했죠. 그런 설법을 통해 의단을 놓치지 않고, 계속 성성하게 화두를 들 수 있도록 제자들을 몰아 의단 속에 몰입할 수 있게 강한 수행체계를 확립했죠. 그런 면에서 요즘 간화선 수행이 대중화되는 흐름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박영재 : 백봉 선생님의 이런 불꽃 튀는 설법은 일종의 점검 시스템 성격을 갖는군요. 결국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 또는 활성화는 ‘점검 시스템의 복원’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산중에서 젊은



성태용 교수(왼쪽)와 박영재 교수는 백봉과 종달 거사의 거사선종의 선사행에 방향을 제시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은 우주 속에 홀로 걸으리라는 뜻이죠.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그것을 사남게 표현했죠. ‘고봉독존담살만인(孤峰獨存 踏殺萬人)’이라 했어요. 오희 스님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라는 의미죠.

박영재 : 종달 선생님의 수행일화 중, 입실지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하루에 규칙적으로 세 번 산책을 했

구는 많은에도 불구하고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박 교수님은 현대인의 선수행에 대한 요구를 부응시킬 만한 새로운 지도법 또는 방법법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박영재 : 방편과 지도법에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만공 선사가 주창한 ‘도사(導師, 도량(道場), 도반(道伴))’이예요. 이 중, 현대인들에게 도량이 제일 중요해요. 먼저 도량은 집인이 용이해야 돼요. 산중의

일상공간 선방으로 활용, 삶속으로 수행 끌어들이며 입실점검 상설화해 간화선 대중화 생활화 유도

시절을 적극적인 수행자로 보낸 큰스님들을 보면, 조실 스님의 방을 수시로 쳐 들어가서 화두를 점검받았죠.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삼계의 같은 기본적인 것은 순전히 한글로 했어요. 한글로 외다보니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모두 한글화해야 한다고 선생님은 주장했고, 방편도 우리 재가자에게 맞는 방편이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방편을 연구해 내고 제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편법을 개발했어요.

박영재 : 무문관에서 ‘대도무문천차유로(大道無門千差有路)’라 했어요. 대도에는 따로 문이 없으니 천 갈래 만 갈래 길로 모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성태용 : 맞아요. 백봉 선생님은 ‘천 갈래 길이지만 고개를 넘는 길은 한 길이다’라고 했죠. 천 갈래 길이지만, 고개를 넘는 길은 외길이다 했어요.

박영재 : 그 고개가 무문관이에요. ‘투득자관건곤복보(透得此觀乾坤獨步)’라 했습니다. 이 무문관의 문을 투과하면,

어요. 본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제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라도 더 견지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제가 시계만 봐도 선생님이 어느 코스에 계시는지 알 정도였죠. 그래서 입실점검을 받으려고, 제가 그 앞에 가 있으면 선생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앞에 서서 합장을 하고 점검을 받고 다시 돌아가곤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입실이 생명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선생님은 철저히 입실점검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거의 생활 속에서 수행지도도 했죠. 선생님이 유성에서 농가를 얻어서, 밭을 가꾸고 마당의 화단을 일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들, 마름도 정리가 돼야 공부가 된다. 늘 주변을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낮에는 함께 밭일 하고 밤에는 좌화불와(久坐不臥)를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면, 바로 쫓아 들어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성태용 : 요즘 선수행이나 명상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선수행의 요

선원은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선도화는 각 자부 모임을 이끄는 법사가 ‘있는 곳’에서 수행을 해요. 서강대 모임은 서강대 성당 기도실 온돌방을 빌려 매주 참선모임을 하고 있죠. 이제는 선방이란 개념을 달리 해야 돼요. 기존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재가에 있으면서 자기 전문직에 소홀히 하고, 산중으로 선원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안쓰러워 보여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화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활면의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선상에서 얽고 얽힌 인생인자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결국 내가 져야 한다. 때문에 과감하게 화두를 대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모음을 잘 굴러가는 세발귀’라고 했어요. 세발귀를 이렇게 수행하면, 나와 남, 사회를 완성시키는 방편이 된다고 강조했죠.

박영재 : 화두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인들, 특히 초심자들이 많이 느껴요.

성태용 : 재가자들이 화두를 들다보면, 자존심만 심하게 상하고 결국은 의지가 꺾여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극히 잘못됐어요.

박영재 : 그것은 지도의 문제예요.

성태용 : 지도의 문제죠. 왜냐하면 의식도 안 생기는데 화두를 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의식은 안 생기고 머리만 아파 상기병에 걸리기 십상이죠.

박영재 : 입실점검이 상설화돼야 돼요. 스승에게 입실점검을 받으러 가는 순간은 초긴장 상태예요. 그 초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보면, 화두가 안 들릴려야 안 들릴 수가 없게 돼요. 선생님은 ‘보보형 풍기(步步風起)’란 선어를 즐겨 썼죠.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에서 청풍이 일어 하지만 그것이 선중으로 휘날리는 거지, 가는 곳마다 죽을 쓰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선수행을 하겠느냐’고 늘 강조했죠.

성태용 : 보법회는 백봉 선생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제자들이 수행담과 수행 체험수기를 모으고 있어요. 선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극제와 격려가 될 것으로 기대해요.

박영재 : 선도화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선도회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 종달 선생님의 어록집을 10권으로 묶어 선수행에 요긴한 내용을 담아 편찬할 예정이죠.

성태용 : 오늘 백봉 선생님과 전혀 다른 족적을 남긴 종달 선생님의 제자인 박 교수님을 만나 서로 다트면서도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재가자로서 출가자보다 몇 배 단단한 각오로 수행에 달려든 두 분의 정신이 재가자의 선수행에 귀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했어요.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마나는 9월간의 내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파트 센터
 아파트 마스터 김명관
 전화를 쓰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열성적인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신청**
 서울시 동구구 명동동 154-1
 전화 02-6230-2113 / 팩 02396-2736
 http://www.bvcenter.com.kr
 E-mail: heejuy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1〉 조주 선사가 오래오래 산 까닭은?

연젠가 조주 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마조 선사가 ‘마씨’ 이길래 당연히 조주스님도 ‘조씨’ 려니 하고 나와 같은 성씨임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후 ‘나도 선사처럼 오래 살아야지’ 하고 운을 띄우는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무뚝뚝하면서도 비수같은 한 마디가 날아왔다.

“조주(趙州)는 인명(人名)이 아니라 지명(地名)인데요.”

“??? (으- 쥐구멍이 어디야) 음- 그런 그렇고, 조주 스님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너무 건강하게 살다보니 ‘고불(古佛)’ 소리를 들어가며 120살이 된 것일까? 아니면 오래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에 장수원력을 세운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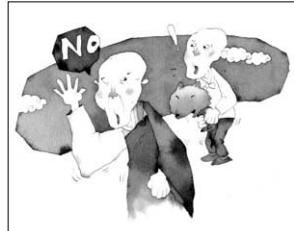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조주랑 동관음원에 80살이 되던 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

그러나 애석하게도 달정은 도중에 병이 나서 죽고 만다. 도반을 잃은 종심의 슬픔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종심은 그 뒤 남전 선사를 만났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의 법을 잇게 된다.

그러하여 조주랑 동관음원에서 머물면서 달정이 세상에 다시 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임야사가 있던 곳과 동관음원 위치의 지리적 관계성은 불민한 탓에 살펴지는 못했다.

120살까지 산 것이 그냥 산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를 기다리고도 남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아나나 다들 까 달정은 환생하였고 그리고 또 출가를 하였다. 수행자는 수행자로 다시 오기 마련인가 보다. 업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 법명은 ‘문원’이라고 했다.

하루는 젊은 문원 스님이 느닷없이 개를 들고 와서 연로한 조주 선사에게 물었



병으로 먼저 떠난 도반의 환생 믿은 조주 선사 “개에게도 불성이…” 물은 스님이 환생한 도반

면서 이후 40년을 한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 자리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선사는 더러 보이지만 40년 역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래저래 깨지기 어려운 2관왕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나라 예주 방림리에 두 동자가 함께 밭심하여 집을 나와 임야사로 출가를 했다. 이 두 동자가 태양산 서봉 아래에서 계속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토굴을 만들고서 정진을 했다. 그러하여 견성해서 많은 증성을 교화하길 발원하고 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목숨을 걸고 수도하였다.

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에 조주 스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없다(無).”

이 말을 듣고서 문원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물론 〈조주록〉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다. 그다음 이야기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속명풍도 함께 열렸다. 흰머리칼의 늙은 방장스님은 그 옛날 토굴에서 함께 정진하던 도반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깨인과 서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군더더기라서 빼버렸다 보다.

이런 선문답은 어떻게?

문: 조주 선사께서 오래오래 사신 까닭은?

답: ‘조주무자(趙州無字)’ 화두를 만들기 위해서.

‘백!(똥통이 날아오는 소리)’ 썰데없는 소리!

■ 원월 스님(조계종 포교원 선도국장)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초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읍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공등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령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삼상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아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동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導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 (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해서 하시려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결의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1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성업정(육신, 정신업정)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佛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를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아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예매하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성 (천인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實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